

#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26권 3호(2013년 9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 목 차

---

-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아동 상위정서철학의 매개효과 검증 송수정 · 남은영
- 아동의 신체적 학대 경험과 반응적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의도적 통제와 사회정보처리의 매개효과 장휘순 · 이승연
- 정서인지기능과 억제기능, 일반지능, 사회기능이 탈화제 발언(脫話題 發言; off-topic speech)에 미치는 효과 김영경 · 진영선
- 어머니의 정서발달 관련 신념에 따른 정서표현성 및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신주혜 · 정윤경
- 일차순위와 이차순위 마음상태에 대한 아동의 이해: 발달적 격차를 중심으로 정진나
- 마음이해와 공감의 독재자 게임에 나타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권주현 · 박영신
- 

한국발달심리학회

# 한국심리학회지

## 제26권 3호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아동 상위정서철학의 매개효과 검증	1
..... 송수정 · 남은영	
아동의 신체적 학대 경험과 반응적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의도적 통제와 사회정보처리의 매개효과	19
..... 장휘순 · 이승연	
정서인지기능과 억제기능, 일반기능, 사회기능이 탈화제 발언(脫話題 發言; off-topic speech)에 미치는 효과	47
..... 김영경 · 진영선	
어머니의 정서발달 관련 신념에 따른 정서표현성 및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71
..... 신주혜 · 정윤경	
일차순위와 이차순위 마음상태에 대한 아동의 이해: 발달적 격차를 중심으로	97
..... 정진나	
마음이해와 공감의 독재자 게임에 나타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117
..... 권주현 · 박영신	



# 어머니의 정서관련 신념과 이에 따른 정서표현성 및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신주혜 정윤경<sup>1)</sup>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 어머니의 정서와 정서발달 관련 신념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양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3~6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정서표현성,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 정서관련 신념을 포함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 어머니에게서 정서에 대한 가치, 통계가능성, 발달과정, 지도, 관계 신념과 관련된 12개의 하위 요인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중 한국 어머니들은 긍정 정서가 가치를 지닌다는 신념의 수준이 가장 높았고 경멸이나 비난에 대한 신념 수준이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은 신념들은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정정서와 긍정정서의 가치 그리고 부모의 지도가 중요하다는 신념은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지지적 반응과 높은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정서는 위험하다는 신념은 비지지적 반응과는 정적 관련성이, 긍정정서표현, 친밀정서표현과 같은 정서표현성과는 부적 관련성이 있었으며, 정서경멸, 조작 신념은 비지지적 반응과 높은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정서관련 신념은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을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관련 신념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지적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정서관련 신념, 정서표현성,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부모는 아동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첫 양육자이자 가장 중요한 타인이다. 아동의 정서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단순히 부모의 양육행동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지향하는 신념이나 사고와 같은 인지적 특성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정윤경,

박혜진, 2012 ; McGillicuddy-De Lisi & Sigel, 1995; Gottman, Katz, & Hooven, 1997; Dunsmore & Karn, 2001). 본 연구에서는 한국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지적 요인으로서 자녀의 정서관련 신념들을 확인하고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 교신저자 : 정윤경, E-mail: benijeong@catholic.ac.kr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 결정하고 실제적으로 훈육하는데 있어 부모의 인지적 요인이 작용된다(Dix, Ruble, & Zambarano, 1989). 부모는 아동의 행동에 대해 아동의 기분, 동기, 의도, 상황에 대한 이해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의 양육 행동을 조절한다(Dix, 1991). 가령, 아동이 분노나 짜증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보일 때 아동이 아직 어려서 스스로 자신을 조절할 능력이 없다는 신념을 가진 부모는 아동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화를 적게 느끼며 침착하게 설명하거나 훈육하는 것이 적절한 양육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부모의 실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 중 하나가 양육목표로, 이는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성취하기를 바라는 결과이다(Dix, 1991). 그러한 양육목표에 대한 개념적인 틀을 제공하고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근원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인지적 변인이 양육신념이다(McGillicuddy-De Lisi, 1985).

부모는 정서와 관련하여서도 고유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는데, 정서에 대한 부모의 신념과 생각에 대해서 Gottman과 그 동료들은 상위-정서 철학(meta emotion philosophy)으로 정의하고 두 가지 유형을 제안하였다(Gottman, et al., 1996). 정서 코칭 철학(emotion coaching philosophy)은 자녀의 미세한 정서도 알아차리고 부정적 정서라 할지라도 그 표현을 통하여 부모와 자녀간의 친밀감을 키우고 교육의 기회로 사용하는 등 모든 정서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반면 정서 방임적 철학(emotion dismissing philosophy)은 부정적인 감정은 자녀에게 해로우므로 되도록 빨리 바꾸어주어야 한다는 신념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상위-정서 철학이 제안한 두 가지 유형은 너무 광범위할 뿐 아니라 신념과 행동이 혼합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연구자들은 정서관련 신념을 구체적인 요인으로 구분하고자 하였고, Dunsmore와 Kam(2001)은 자녀의 정서와 정서발달에 대한 부모의 신념을 측정하는 설문지(Parents' Beliefs about Feeling, PBAF)를 개발하여 다음과 같은 2가지 요인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정서언어(Emotion Language) 신념으로 자녀의 정서용어 사용에 대한 가르침이나 사회화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신념이다. 두 번째 요인은 발달적 준비(Developmental Belief) 신념으로 자녀가 정서를 통제하거나 논의할 준비가 발달적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이다. 이후 Dunsmore 등(2001)의 척도를 사용하여 한국 이민자 부모를 대상으로 한 Cervantes와 Seo(2005)연구에서는 발달 준비, 정서 언어, 정서적 유대(Emotional bonding), 정서표현의 자제(Emotional reserve) 신념이 발견되었다. 추가된 요인인 정서적 유대(Emotional bonding)는 자녀와의 정서적인 친밀감에 대한 신념을 반영한 것이며, 정서표현의 자제(Emotional reserve)는 정서통제에 대한 유교적 사상과 연관된 신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Dunsmore 등(2001)의 척도 문항도 상위-정서 철학처럼 행동이 혼합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그에 영향을 주는 신념을 분리하는 것이 아동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는 생각을 토대로(Cowan, 1996; Eisenberg, 1996), Halberstadt와 그 동료들은 양육행동에서 신념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Halberstadt와 Dunsmore 등(2007)은 1108명의 부모에게 다양한 정서관련 신념을 포함하는 설문지(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s, PBACE)를 실시하고 요인분

석을 한 결과, 5가지 신념 집단으로 조직화되는 11개의 하위 신념들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 신념 집단은 정서에 대한 가치(Value)와 관련된 것으로 정서의 가치나 수용가능성에 대한 신념이다. 어떠한 정서가 가치 있고 수용가능한지는 부모에 따라 다양한데, 어떤 부모는 긍정 정서는 수용하나 부정 정서는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부모는 모든 정서가 다 위험하며 정서를 너무 강하게, 너무 자주 경험하는 것은 해롭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떤 부모에게는 정서는 단지 하나의 선택일 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두 번째 신념 집단은 통제(Control)에 관한 것으로 아동이 정서를 통제할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신념이다. 자녀가 정서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신념을 가진 부모는 정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아동이 감정적으로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자녀의 미숙한 정서통제에 덜 당황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적게 보일 수 있다. 세 번째 신념 집단은 정서의 발달과정(Developmental Processes)과 관련된 것으로 정서가 발달에 의해 변화 가능한 특성인지 아니면 기질적으로 고착된 것인지에 대한 신념이다. 성장하면서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울음이나 짜증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수용해주거나 아동의 연령이나 능력에 따라 다르게 사회화할 것이다. 네 번째 신념 집단은 지도(Guidance)에 관한 것으로 정서에 대해 교육하고 지도하는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념이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정서를 탐색하도록 돕는 책임을 부모 자신에게만 부여하는 반면 어떤 부모는 아동 스스로도 정서에 대해서 배워간다고 생각한다. 다섯 번째 신념 집단은 정서를 통한 자녀와의 관계(Relational)에 관한 것으로 자녀양육 시 놀림이나 비난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자녀

의 정서표현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 보는 부모는 자녀의 정서를 진지하게 수용해주기 보다는 무시하거나 처벌행동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어떤 부모는 자녀의 정서를 사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자녀가 공유하고자 할 때까지 기다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부모는 자녀를 도와주거나 지도해주기 위하여 자녀의 모든 정서에 대해 다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부모의 정서관련 신념은 부모가 속해있는 문화가 요구하고 중요시하는 가치체계를 반영하여 결국 자녀의 사회화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양한 인종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한 결과(Denham, Caal, Bassett, Benga, & Geangu, 2004; Parker, Halberstadt, Dunsmore, Townley, Bryant, Thompson, & Beale, 2012) 문화마다 정서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모들이 가지는 정서관련 신념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부모가 가지는 정서와 관련된 신념과 가치관은 정서관련 태도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Dix, 1991; Gottman, Katz, & Hooven, 1996; Dunsmore et al., 2001; Dunsmore, Her, Halberstadt & Perez-Riviera, 2009). 가령,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부모는 자녀의 정서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자녀가 보이는 분노, 슬픔 또는 두려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인정해주고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며 정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와 반대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신념을 가진 부모는 부정적 정서는 자녀에게 해로우며 되도록 빨리 바꾸어 주거나 없애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는 정서적 경험이나 정서표현의 가치에 대한 신념, 자녀의 정서경험과 표현을 사회화하는 부모

역할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신념들이 부모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다.

Gottman과 그 동료들, Dunsmore와 Karn(2001), Halberstadt와 그 동료들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은 부모의 정서관련 신념이 정서관련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Eisenberg와 그의 동료들(1998)이 제안한 정서표현성, 아동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을 다루고자 한다. 부모의 정서표현은 정서적 자극에 대한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의 지속적이고 지배적인 패턴이나 스타일로(Halberstadt, Cassidy, Shifter, Parke, & Fox, 1995), 자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자녀가 실망, 분노,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부모가 나타내는 반응을 말한다. 부모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서 지지적 또는 비지지적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가 느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자녀의 기분이 회복되거나 부정적 정서를 유발한 자극에 대처하도록 돕는 지지적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또는 자녀와의 접촉을 피하거나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표현하거나 처벌적 반응을 하거나 자녀의 정서적 경험의 가치를 낮추는 비지지적 반응을 보일 수 있다(Eisenberg & Fabes, 1994; Eisenberg, Fabes, & Murphy, 1996; Kliewer, Fearnow, & Miller, 1996).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스스로 정서를 풍부하게 표현하며(Beck, Emery, & Greenberg, 1985), 자녀의 정서경험을 언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는

높은 수준의 정서표현을 하고 자녀와 더 많은 정서적 대화를 나누었다(정윤경, 박혜진, 2012; Cervantes et al., 2005; Dunsmore et al., 2001). 정서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진 부모는 자신의 정서표현을 감추려는 경향을 보였는데(Dunsmore et al., 2009), 9.11 테러공격을 겪은 어머니와 아동에 대한 연구에서도 정서는 위험하다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는 낮은 수준의 정서표현을 보이며 자녀와의 정서대화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Halberstadt, Thompson, Parker & Dunsmore, 2008). 정서에 대해 지도하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부모는 자녀와의 대화에서 더 많은 정서언어를 사용하였다(Rivera & Dunsmore, 2011).

정서표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신념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 경험과 그 표현을 최소화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Gottman et al., 1996) 자녀의 분노,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수용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자녀가 보이는 정서에 비지지적인 반응을 적게 보이는 경향을 나타냈다(정윤경 외, 2012; Wong, McElwain, & Halberstadt, 2009).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정서발달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진 것에 비하여(백미애, 2002; 이현민, 1998; 정윤경, 박보은, 2010) 부모의 정서관련 신념과 이와 관련된 양육행동 및 아동의 결과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배지우(2010)는 한국 부모들에게서 공감적 수용, 억압적 태도, 자각 민감성, 지지적 신념이라는 네 가지 상위정서를 확인하고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그러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상위정서만을 확인하였고 척도 문항이 신념과 행동 차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양육행동 및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련성을 상위

정서 네 가지 요인을 합산한 값을 토대로 분석을 하여 상위정서 각각이 가지는 역할을 밝히지 못했다. 정윤경과 박혜진(2012)의 연구에서도 Cervantes 등의 연구(2005)와 유사한 정서언어, 발달적 준비성, 정서적 유대,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을 발견하였으나 행동이 혼합된 Dunsmore 등(2001)의 문항을 사용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처럼 정서관련 신념들이 한국 부모들에게서 발견되고 있으나 이러한 신념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신념, 가치와 같은 인지적인 요인뿐 아니라 행동을 포함하고 있어 양육행동과는 구분되는 순수한 신념을 확인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외국연구에서 점차 신념의 다양한 차원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국내연구는 미비한 수준이다.

지금까지의 국내연구를 통하여 부정적 정서에 대한 가치, 부모 지도, 통제가능성과 유사한 신념을 발견하였으나 아직 긍정정서 가치나 발달과정, 관계에 대한 신념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한국 어머니가 가지는 다양한 정서관련 신념들을 확인하고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성을 가짐을 검증함으로써 이러한 신념들이 아동의 정서발달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변인임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어머니가 가지는 자녀의 정서발달과 관련된 추가적 신념들을 알아보고 이러한 신념들과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과의 관련성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갖는다.

첫째, 한국 어머니가 가지는 정서관련 신념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둘째, 한국 어머니의 정서관련 신념의 수준은 어떠한가?

셋째, 정서관련 신념들이 정서관련 양육행동(정서표현성,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가?

## 방 법

### 연구대상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유치원에 다니는 3~6세 아동을 둔 어머니 11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697부가 수거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653명의 자료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3.8세로 20대가 25명(3.83%), 30대가 540명(82.7%), 40대가 88명(13.48%)이었다. 학력은 고졸이 193명(29.56%), 대졸 405명(62.02%), 대학원졸 38명(5.82%), 기타가 17명(2.6%)이었다.

### 측정도구

#### 정서관련 신념 척도

Halberstadt와 Dunsmore 등(2007)이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자기 보고식 질문지(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s Questionnaire : PBACE)를 번안한 후, 심리학 전공 교수 1명과 박사과정 대학원생 2명이 함께 원척도 문항과 비교하면서 번안한 문항의 내용과 용어가 적절한지를 평가하고 문항수정을 하였다. 완성된 번역본을 영어와 한국어 이중 언어 사용자가 영문으로 바꾸어 심리학 전공 교수 1명, 박사과정 대학원생 1명이 원래의 영어문항과 비교하며 원척도문항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를 최대한 살리도록 단어와 문장을 수정하였다. 수정한 문항을 다시 유치원 자녀를 가진 어머니 5



명에게 실시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문항의 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문장의 뜻이 명확하고 좀 더 이해하기 편하도록 문항을 다듬었다. 영어와 한국어 이중 언어 사용자가 영문으로 역번역한 문항을 원칙도문항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를 최대한 살리도록 다시 번안하고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총 152문항으로 Likert식 6점 척도(1=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정서발달에 대한 문장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원 척도는 정서의 가치, 통제, 발달과정, 지도, 관계의 5개 척도로 11개의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지는데, 긍정정서가치(10문항), 부정정서가치(12문항), 모든 정서위험(13문항), 정서일뿐(emotion just are, 10문항), 부모 지도(9문항), 스스로 배우는 것(8문항), 통제(24문항), 발달과정(25문항), 경멸(11문항), 정서사생활(17문항), 조작(13문항)으로 구성된다. 척도의 신뢰도는 본 연구 결과에서 새로운 하위 요인과 함께 제시할 것이다.

### 정서표현성 척도

부모의 정서표현성을 측정하기 위해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하고 하정(1997)이 번안한 정서표현 척도(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EE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실제 표현행동에 초점을 두고 정서표현성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총16문항으로 Likert식 7점 척도(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요인으로 친밀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 긍정적 정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74, 친밀정서표현은 .71, 부정적 정서표현은 .55, 긍정적 정서표현은 .69이었다.

###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양식 척도

자녀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Fabes, Eisenberg와 Bernzwing(1990)이 개발한 CCNES(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를 김희정(1995)이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CCNES는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부모의 반응유형은 크게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 2개의 범주로 나누어진다. 지지적 반응은 표현의 격려반응, 정서 중심적 반응, 문제 중심적 반응의 3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되며, 비지지적 반응은 최소화 반응, 처벌적 반응,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의 3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된다. 총 6개의 하위 범주는 각각 12문항씩 총 72문항으로, Likert식 7점 척도(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하위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정서표현격려는 .78, 정서중심반응은 .80, 문제중심반응은 .78, 처벌반응은 .66, 최소화반응은 .63, 심리적 스트레스반응은 .63이었다.

###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유치원에 다니는 3~6세 아동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유치원에 형제자매가 다니는 경우 어머니의 반응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 아동에 대한 설문지만을 채택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653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한국 어머니가 가지는 정서관련 신념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거한 설문지 중

300명의 자료는 탐색적 요인분석, 353명의 자료에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고 한국 어머니의 정서 관련 신념의 수준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확인된 정서관련 신념들이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정서관련 신념 구조

한국 어머니가 가지는 자녀의 정서 관련 신념의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152문항에 대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최대우도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하위 요인간 상관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요인회전 방법으로 사각회전의 한 방법인 direct oblimin 방법을 사용하였다. 회전 후 요인 부하량이 .40이상인 문항을 선정하였고 기존 척도의 하위 요인 구성개념을 참고하여 요인 이름을 정하였다.

가치척도에서 요인분석을 위한 자료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KBO값은 .852로 일반적인 기준치 .80이상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역시  $\chi^2=5580.484$ ,  $p < .001$ 로 본 자료가 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자료임을 알 수 있었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eigen value)가 1이상인 요인이 11개로 나타나 너무 많은 요인이 추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고유치의 크기뿐 아니라 스크리도표, 요인의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과 4개의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 4요인을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어떤 요인에도 .40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이지 않는 문항과 요인의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부하된 문항들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문항은 추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송지준,

2011).

요인 1에 ‘때때로 아이들이 주저앉아 마음껏 우는 것도 괜찮다’(문항 22) 등의 10개 문항이 높게 부하되었다. 이 문항들은 기존 척도에서 ‘부정정서 가치’에 해당되었던 문항들이다. 요인 2에는 ‘자신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아이들에게 중요하다’(문항 33) 등의 10개의 문항이 높게 부하되었으며 기존 척도에서 ‘긍정정서가치’에 해당되었던 문항들이다. 요인 3은 ‘슬픈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단지 삶의 일부이다’(문항32) 등의 5개의 문항이, 요인4는 ‘가능하다면 슬픔을 느끼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중요하다’(문항30) 등의 10개의 문항이 부하되었고 이 문항들은 기존 척도의 ‘정서일뿐’과 ‘모든정서위험’에 해당하였다. 결과는 부록 I 에 제시되었다. 최종적으로 ‘부정정서가치’ 요인 10문항, ‘긍정정서가치’ 요인 10문항, ‘정서일뿐’ 요인 5문항, ‘모든정서위험’ 요인 10문항이 선정되었다.

통제가능척도에서 KBO값은 .899로 .90에 매우 가까운 양호한 수치를 나타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도  $\chi^2=3107.845$ ,  $p < .001$ 로 요인분석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은 5개가 탐색되었지만 고유치의 크기, 스크리도표, 요인의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척도처럼 1요인으로 지정하여 다시 분석하였다. 어떤 요인에도 .40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이지 않는 문항은 추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통제가능’ 요인에는 18문항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고 결과는 부록 II에 제시되었다.

발달과정척도에서 KBO값은 .865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역시  $\chi^2=2589.798$ ,  $p < .001$ 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을 한 결과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은 6개가 탐색되었으나 2개의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2요인으로 지

정하고 분석한 후 어떤 요인에도 .40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이지 않는 문항과 요인의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부하된 문항들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문항은 추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 가지 요인만을 가지고 있던 기존 척도와는 달리 두 요인이 추출되어 요인 1에 ‘아이들은 자신의 기분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리고 쉽게 넘어갈 수 있다’(문항 15) 등의 6개 문항이, 요인 2에는 ‘아이들은 성장함에 따라 감정적 방식이 변할 수 있다’(문항11) 등의 9개의 문항이 부하되었다. 결과는 부록III에 제시되었다. 각 요인에 부하된 문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인 이름을 명명하여 최종적으로 ‘정서유동성’ 요인 6문항, ‘정서발달가능성’ 요인 9 문항이 선정되었다.

지도척도에서는 KBO값은 .880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역시  $\chi^2 = 2541.372$ ,  $p < .001$ 로 요인분석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분석한 결과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은 3개가 탐색되었지만 스크리도표와 해석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2개의 요인만을 추출하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 1에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가리키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다’(문항 10) 등의 9개 문항이, 요인 2에는 ‘아이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도 정서를 다루는 방법을 깨닫는다’(문항1) 등의 8개의 문항이 부하되었다. 결과는 부록IV에 제시되었다. 기존 척도와 각 요인에 부하된 문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인1은 ‘부모지도’, 요인2는 ‘스스로 학습’으로 명명하였다.

관계척도에서는 KBO값은 .828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도  $\chi^2 = 4746.654$ ,  $p < .001$ 로 나타나 본 자료가 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은 10개가 탐색되었지만 고유치의 크기,

스크리도표, 요인의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3개의 요인만을 추출하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어떤 요인에도 .40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이지 않는 문항은 추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요인 1에 ‘아이들을 흥내내며 놀리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다’(문항11) 등의 10개의 문항이 부하되었으며 이 문항들은 기존 척도에서 ‘경멸’에 해당되었던 문항들이다. 요인 2는 ‘부모는 아이들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알아야 한다’(문항7) 등의 9개 문항이 부하되었고, 요인 3에는 ‘아이들은 단지 바라는 바를 얻기 위해서 자주 슬픈 척 한다’(문항14) 등의 9개의 문항이 부하되었다. 결과는 부록V에 제시되었다. 기존 척도와 문항내용을 고려하여 요인2는 ‘사생활’, 요인3은 ‘조작’으로 명명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정서관련 신념의 요인이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도 적합한 결과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문항이 많은 경우 여러 개의 개별 문항을 결합하는 문항묶음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측정문항이 많은 요인은 문항 묶음을 만들어서 분석하였다. 요인부하량을 고려하는 균형할당 방법을 사용하였고 한 문항묶음에 3, 4개의 문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부정정서가치, 긍정정서가치, 정서위험, 정서발달가능성, 부모지도, 경멸, 사생활, 조작 신념문항은 3개의 문항묶음으로, 스스로 학습 신념문항은 4개의 문항묶음으로, 통제 신념문항은 6개의 문항묶음으로 만들었으며 정서일뿐, 정서유동성 신념은 그대로 개별문항을 사용하였다(부록 VI 참조).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chi^2$  값은 표본 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하는 적합도 지수인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다(홍세희, 2000). TLI와 CFI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지수라고 볼 수 있고, RMSEA는 .05보다 작으면 상당히 좋은 적합도로 보고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로 간주한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RMSEA의 적합도 지수 값은 .041(90% 신뢰구간 시 .037-.045)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으며 또한 TLI적합도 지수는 .922, CFI 적합도 지수는 .934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자녀의 정서관련 신념 척도(PBACE)의 요인구조는 부록VI에 그림으로 제시되었다.

자녀의 정서관련 신념 척도(PBACE)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전체 척도에서 .84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각 하위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부정정서가치 .82, 긍정정서가치 .88, 정서일뿐 .86, 모든정서위험 .78, 통제가능성 .91, 정서유동성 .81, 정서발달가능성 .86, 부모지도 .92, 스스로학습 .83, 경멸 .84, 사생활 .86, 조작 .8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서관련 신념의 수준

한국 어머니들이 가지는 정서관련 신념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12가지 신념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신념 집단 내 하위 요인간의 평균치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1에 제시된 것과 같이, 가치 신념 집단 중에서 긍정정서가치 신념의 평균치가 5.62(.435)로 가장 높고 모든정서위험 신념 평균치는 2.98(.705)로 가장 낮았다,  $F(3,999) = 726.367, p < .001$ . 발달과정 신념 집단에서는 정서발달유동성 신념의 수준이 정서유동성 신념의 수준보다 높았으며,  $F(1,337) = 32.365, p < .001$ , 지도 신념 집단에서는 부모지도 신념수준이 스스로학습 신념 수준보

표1. 정서관련 신념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개념	평균 (표준편차)	F	
가치	부정정서가치	3.85(.689)	726.367***
	긍정정서가치	5.62(.435)	
	정서일뿐	4.05(1.054)	
	모든정서위험	2.98(.705)	
통제	2.51(.646)	-	
발달과정	정서유동성	4.48(.633)	32.365***
	정서발달가능성	4.66(.629)	
지도	부모지도	4.88(.673)	731.400***
	스스로학습	3.19(.751)	
관계	경멸	1.76(.677)	467.169***
	사생활	3.09(.824)	
	조작	3.31(.753)	

\*\*\*  $p < .001$

다 높았다,  $F(1,342) = 731.400, p < .001$ . 관계 신념집단 중에서는 조작 신념의 평균치가 3.31(.753)로 가장 높았으며 경멸 신념의 평균치는 1.76(.677)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F(2,680) = 467.169, p < .001$ .

### 정서관련 신념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

한국 어머니에게서 확인된 12개의 정서 관련 신념이 기존 연구들이 밝힌 것처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정서관련 신념과 정서표현성 간의 상관분석을 한 결과, 정서 신념 중 부정정서 가치 신념은 친밀정서표현( $r = .162, p < .01$ )과, 긍정정서가치 신념은 긍정정서표현( $r = .237, p < .01$ ), 부정정서표현( $r = .132, p < .05$ ), 친밀정서표현( $r = .222, p < .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에 반하여 모든정서위험 신념은 긍정정서표현( $r = -.130, p < .05$ ), 친밀정서표현( $r = -.180, p < .01$ )

표2. 정서관련 신념과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

		정서관련 신념												
		부정정 서가치	긍정정 서가치	정서 일뿐	정서 위험	통제 가능성	정서 유동성	정서발달 가능성	부모 지도	스스로 학습	경멸	정서 사생활	조작	
양육 행동	긍정정서	.084	.237**	.089	-.130*	-.106	.042	.154**	.160**	-.075	-.187**	-.029	-.074	
	정서표현	부정정서	.069	.132*	.069	.041	-.040	.066	.040	.075	.063	.002	.017	-.010
		친밀정서	.162**	.222**	.076	-.180**	-.032	.092	.091	.220**	-.027	-.114*	-.045	-.072
		표현격려	.313**	.251**	.166**	-.159**	-.003	.121*	.234**	.272**	-.035	-.097	-.018	-.116*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정서중심적	.120*	.287**	.092	-.014	-.099	.223**	.284**	.358**	-.026	-.159**	-.156**	-.015
		문제중심적	.139*	.296**	.128*	-.085	-.087	.251**	.322**	.343**	-.042	-.132*	-.109*	-.112*
		처벌	-.004	-.129*	.094	.329**	.241**	-.034	-.225**	-.209**	.276**	.383**	-.014	.257**
		최소화	-.109*	.099	.125*	.338**	-.064	.109*	-.019	.039	.097	.150**	-.127*	.171**
		스트레스	.022	-.023	.044	.247**	.045	.073	-.110*	-.076	.098	.190**	.011	.136*

\*\*  $p < .01$ , \*  $p < .05$

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정서발달가능성 신념은 긍정정서표현( $r = .154$ ,  $p < .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지도 신념은 긍정정서표현( $r = .160$ ,  $p < .01$ ), 친밀정서표현( $r = .220$ ,  $p < .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경멸 신념은 긍정정서표현( $r = -.187$ ,  $p < .01$ ), 친밀정서표현( $r = -.114$ ,  $p < .05$ )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정서관련 신념과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부정정서 가치 신념은 정서표현격려( $r = .313$ ,  $p < .01$ ), 정서중심반응( $r = .120$ ,  $p < .05$ ) 문제중심반응( $r = .139$ ,  $p < .05$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최소화반응( $r = -.109$ ,  $p < .05$ )과는 부적상관 보였으며, 긍정정서가치 신념은 정서표현격려( $r = .251$ ,  $p < .01$ ), 정서중심반응( $r = .287$ ,  $p < .01$ ), 문제중심반응( $r = .296$ ,  $p < .01$ )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처벌( $r = -.129$ ,  $p < .05$ )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정서일뿐 신념은 정서표현격려( $r$

$= .166$ ,  $p < .01$ ), 문제중심반응( $r = .128$ ,  $p < .05$ ), 최소화( $r = .125$ ,  $p < .05$ )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에 반하여 모든정서위험 신념은 표현격려( $r = -.159$ ,  $p < .01$ )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처벌( $r = .329$ ,  $p < .01$ ), 최소화( $r = .338$ ,  $p < .01$ ), 스트레스( $r = .247$ ,  $p < .01$ )와 같은 비지지적 반응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통제신념은 처벌( $r = .241$ ,  $p < .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정서유동성 신념은 표현격려( $r = .121$ ,  $p < .05$ ), 정서중심반응( $r = .223$ ,  $p < .01$ ), 문제중심반응( $r = .251$ ,  $p < .01$ ), 최소화( $r = .109$ ,  $p < .05$ )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정서발달가능성 신념은 정서표현격려( $r = .234$ ,  $p < .01$ ), 정서중심반응( $r = .284$ ,  $p < .01$ ), 문제중심반응( $r = .322$ ,  $p < .01$ )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처벌( $r = -.225$ ,  $p < .01$ ), 스트레스( $r = -.110$ ,  $p < .05$ )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지도 신념은 정서표현격려( $r = .272$ ,  $p < .01$ ), 정서중심반응( $r = .358$ ,  $p < .01$ ), 문제중심반

응( $r = .343, p < .01$ )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처벌( $r = -.209, p < .01$ )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스스로학습 신념은 처벌( $r = .276, p < .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경멸 신념은 정서중심반응( $r = -.159, p < .01$ ), 문제 중심적( $r = -.132, p < .05$ )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처벌( $r = .383, p < .01$ ), 최소화( $r = .150, p < .01$ ), 스트레스( $r = .190, p < .01$ )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생활 신념은 정서중심( $r = -.156, p < .01$ ), 문제중심반응( $r = -.109, p < .05$ ), 최소화( $r = -.127, p < .05$ )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조작 신념은 정서표현격려( $r = -.116, p < .05$ ), 문제중심반응( $r = -.112, p < .05$ )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처벌( $r = .257, p < .01$ ), 최소화( $r = .171, p < .01$ ), 스트레스( $r = .136, p < .05$ )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정서발달 관련 신념들이 양육행동과 관련성을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12개 정서관련 신념을 독립변인으로, 양육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stepwise방식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3에 제시하였다.

다중회귀 분석에서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보는 공차한계 값이 0.1이하일 때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하는데, 표3에 제시되었듯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긍정정서 표현에 대해서는 긍정정서가치( $\beta = .251, p < .001$ ), 모든정서위험( $\beta = -.134, p < .05$ )이, 부정정서 표현에 대해서는 긍정정서가치( $\beta = .143, p < .05$ )가, 친밀정서 표현에 대해서는 긍정정서가치( $\beta = .185, p < .01$ ), 모든정서위험( $\beta = -.141, p < .05$ ), 부모지도( $\beta = .126, p < .05$ )가 영향을 미쳤다.

자녀의 부정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 중 정서표현격려는 부정정서가치( $\beta = .256, p < .001$ ), 부모

표3. 정서관련 신념에 따른 양육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양육 행동	독립변인 (신념)	공차 한계	$\beta$	$t$	adjusted $R^2$	F		
정서 표현	긍정 정서	긍정정서가치	.982	.251	4.410***	0.83	14.157***	
	정서	정서위험	.982	-.134	-2.362*			
	부정 정서	긍정정서가치	1.000	.143	2.445*	0.17	5.978*	
	친밀 정서	긍정정서가치	.777	.185	2.911**			
	정서 표현 격려	정서	정서위험	.982	-.141	-2.490*	0.90	10.574***
		정서	부모지도	.789	.126	1.988*		
부정 정서 표현에		부정정서가치		.916	.256	4.496***	.160	14.487***
		부모지도		.966	.213	3.856***		
		정서일뿐		.943	.119	2.127*		
		조작		.997	-.109	-2.001*		
대 한 반 응	정서 중심	부모지도	.819	.294	4.869***	.145	25.279***	
	정서 발달 가능성		.819	.158	2.619**			
	문제 중심 에	부모지도		.776	.280	4.537***	.166	19.738***
		정서 발달 가능성		.796	.242	3.972***		
		스스로학습		.892	.124	2.154*		
		경멸		.774	.207	3.435**		
반 응	정서위험		.846	.178	3.083**	.203	15.403***	
	스스로학습		.838	.101	1.743*			
	최소 화	조작		.878	.135	2.384*	.116	19.654***
		부모지도		.837	-.123	-2.122*		
	스트 레스	정서위험		.992	.339	6.043***	.063	10.538***
		정서유동성		.992	.124	2.217*		
스트 레스	정서위험		.907	.200	3.318**	.063	10.538***	
	경멸		.907	.121	2.009*			

\*\*\*  $p < .001$ , \*\*  $p < .01$ , \*  $p < .05$

지도( $\beta = .213, p < .001$ ), 정서일뿐( $\beta = .119, p < .05$ ), 조작( $\beta = -.109, p < .05$ )이, 정서중심 반응에 대해서는 부모지도( $\beta = .294, p < .001$ ), 정서발달가능성( $\beta = .158, p < .01$ )이, 문제중심 반응에 대해서는 부모지도( $\beta = .280, p < .001$ ), 정서발달가능성( $\beta = .242, p < .001$ ), 스스로학습( $\beta = .124, p < .05$ )이 영향을 미쳤다. 처벌반응에 대해서는 경멸( $\beta = .207, p < .01$ ), 모든정서위험( $\beta = .178, p < .01$ ), 스스로학습( $\beta = .101, p < .05$ ), 조작( $\beta = .135, p < .05$ ), 부모지도( $\beta$

=  $-.123$ ,  $p < .05$ )가, 최소화 반응에는 모든정서 위협( $\beta = .339$ ,  $p < .001$ ), 정서유동성( $\beta = .124$ ,  $p < .01$ ) 신념이, 스트레스 반응에는 모든정서위험 ( $\beta = .200$ ,  $p < .01$ ), 경멸( $\beta = .121$ ,  $p < .05$ ) 신념이 영향을 미쳤다.

##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어머니가 가지는 자녀의 정서 관련 신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러한 신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 변인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한국 어머니의 정서관련 신념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정서와 관련된 한국 어머니의 신념으로 부정정서가치, 긍정정서가치, 정서일뿐, 모든정서위험, 통제가능, 정서유동성, 정서발달가능성, 부모지도, 스스로학습, 경멸, 사생활, 조작의 12가지를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와 달리 발달 과정에 대한 신념이 정서유동성, 정서발달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신념으로 분리된 것을 제외하고는 Halberstadt 외(2007)의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이는 한국 어머니들도 서양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정서관련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기존 국내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정서관련 신념들이 확인되었다. 긍정 정서가 가치 있다는 신념, 부정 정서이든 긍정 정서이든 정서를 너무 강하게 너무 자주 경험하는 것은 해롭다는 신념, 정서는 하나의 선택일 뿐 큰 가치를 두지 않는 신념, 정서는 순간순간 빠르게 변화한다는 신념, 성장하면서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신념, 아동 스스로가 정서에 대해서 배운다는

신념, 자녀양육 시 놀림이나 비난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신념, 자녀의 정서표현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조작된 행동으로 보는 신념, 자녀의 정서를 사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자녀가 공유하고자 할 때까지 기다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어 한국 어머니가 다양한 정서관련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정서에만 한정되었던 정서관련 신념(배지우, 2010)의 폭을 넓히고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신념 요인을 발견하고 정서경험을 언어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 부모가 자녀에게 가깝게 느끼도록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는 신념, 정서를 드러내지 않고 억제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신념(정윤경·박혜진, 2012)과 같이 행동이 혼합된 신념보다는 인지적 요인으로서의 순수한 신념을 발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정서관련 신념의 수준

정서의 가치에 대한 신념 중에서는 한국 어머니는 긍정 정서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 가장 높은 수준을, 모든 정서는 위험하다는 신념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미국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Lozada, 2011; Rudd, 2006; Stelter, 2007)과 유사한 결과였는데, 미국 부모와 한국 어머니 모두 자녀가 보이는 긍정 정서가 가치가 있으며 수용가능하다는 신념이 가장 크고 정서는 위험하다는 신념이 가장 작은 것으로 보인다.

발달과정에 대한 신념에서는 아이들의 정서는 성장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신념 수준이 아이들이 정서는 순간순간 달라진다는 신념 수준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부모에게서 확인된 발달적 준비성 신념처럼(정윤경 외, 2012), 한국 어머니는 정서에 있어서 아동의 발달수준이나 발달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정서의 지도 신념에 관해서 한국 어머니들은 정서에 대해 자녀가 스스로 학습한다는 신념 수준보다 부모가 지도해야한다는 신념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국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Rudd, 2006)와 유사한 결과로, 미국 부모와 한국 어머니 모두 정서에 대해 교육하고 지도하는 책임자로 아동보다는 부모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신념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서를 통한 관계에 대한 신념에서 한국 어머니들은 자녀의 정서표현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 보는 신념 수준이 가장 높았고 자녀 양육 시에 놀림이나 비난을 사용해도 된다는 신념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 또한 Stelter(2007)연구 결과와 유사하여 미국 부모와 한국 어머니 모두 자녀의 정서를 조작된 것으로 보는 신념이 크고 자녀 양육 시 놀림이나 비난을 사용하는 것이 괜찮다는 신념은 낮은 편이었다.

이렇듯 미국 부모와 한국 어머니가 다양한 정서관련 신념에서 유사한 신념 수준을 보인 반면에 부정정서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서는 한국 어머니가 미국 부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신념을 보였다. 미국 부모들의 부정정서가치 신념 평균치가 4.34(.70)인(Lozada, 2011) 반면에 한국 어머니들의 평균치는 3.85(.69)로 나타났다. 한국 어머니가 보이는 낮은 수준의 부정정서가치 신념은 최해연과 민경환(2005)의 연구에서 확인된 부정정서 표현은 관계를 해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만든다는 부정 정서의 표현에 대한 낮은 신념과 유사하다. 한국 어머니와 미국 어머니의 양육신념 비교연구(김희진, 1995)에서도 미국 어머니들이 한국 어머니보다 자녀가 자유롭게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를 원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하는 체면의식이 강하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욕구

표현을 통제하는 기제가 발달되어 있다는 특징(윤태립, 1986; 최상진, 1997)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정서관련 신념과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

자녀의 정서에 대한 신념과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정정서가치에 대한 신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친밀한 정서표현을 많이 하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을 격려하며 자녀가 기분을 회복하고 문제해결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낮은 수준의 최소화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정서가치에 대한 신념이 높은 어머니는 높은 수준의 정서표현을 보이며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을 격려하며 정서를 조절하고 문제해결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뿐 아니라 낮은 수준의 처벌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정서일지라도 자녀가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할 때 이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공감하며 표현을 격려하고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정서를 탐색하고 명료하게 지각하고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돕는 정서코칭 철학의 특징과 일치한다(Gottman외, 1996).

정서가 위협하다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는 긍정적이고 친밀한 정서표현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반응은 낮았으나 처벌, 최소화, 스트레스와 같은 비지지적 반응과는 정적인 관련성을 가졌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감정은 해로우므로 빨리 제거하거나 바꾸어주어야 한다는 정서방임 철학의 특징과 일치한다(Gottman외, 1996).

단지 정서일 뿐이라는 신념이 높은 어머니는 정서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가지지는 않지만 부정적인 인식 또한 적다보니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을 격려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돕기도 하지만 자녀의 정서에 관심을 두지 않고 무시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은 정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는 높은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정윤경과 박혜진(2012)의 연구에서 자녀가 부정적 감정을 다룰 준비가 되어있다고 믿는 발달적 준비성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은 결과와 유사하다. 통제가능성 신념은 다만 부정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 중 처벌과만 관련이 있었는데, 자녀가 정서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어머니들은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보였을 때 통제하지 못한 것을 아이의 책임으로 느껴 화를 내고 혼을 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Dix & Grusec, 1985).

아이들의 정서는 유동적이라는 신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을 격려하고 자녀가 정서를 조절하고 문제해결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높은 수준의 최소화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의 정서표현 방식은 성장하면서 달라진다는 신념이 높은 어머니는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하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을 격려하고 자녀가 정서를 조절하고 문제해결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낮은 수준의 처벌,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의 정서는 오래가지 않고 빠르게 변한다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는 자주 변화하는 자녀의 감정에 관심을 두지 않고 무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는 자녀를 혼을 내거나 자신의 심리적 불편감에 초점을 두는 스트레스 반응을 덜 보였는데, 이는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지적 반응은 감소하고 비지지적인 반응이 증가한 결과처럼 자녀의 정서적 능력에 대한 기대수준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광향, 2009).

부모가 지도해야 한다는 신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긍정적이고 친밀한 정서표현을 많이 하며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을 격려하고 자녀가 정서를 조절하고 문제해결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낮은 수준의 처벌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에게 정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 부모는 아동의 정서를 타당화해주고 언어적으로 정서를 이야기하도록 지원하며 정서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자녀를 돕는다는 정서 코칭 철학의 특징과 일치한다(Gottman 등, 1996). 여러 연구에서도 자녀의 정서 언어발달을 사회화하는 역할에 대한 신념은 부모의 높은 수준의 정서표현과 이야기나누기에 영향을 주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지지적 반응과 연관이 되었다(정윤경 외, 2012; Cervantes et al., 2005; Dunsmore et al., 2001; Rivera et al., 2011).

정서에 대한 규칙을 자녀 스스로 배워나갈 수 있다는 신념은 처벌반응을 제외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 어머니는 정서발달 관련하여 자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아직은 어린 나이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배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을 양육하고 지도해야 하는 부모역할에 대한 신념이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처벌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제 신념과 유사하게 부정적 정서에 대한 책임을 자녀에게 돌려 화를 내고 혼을 내는 방식을 보이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 양육 시 비난이나 놀림을 사용해도 된다는 신념이 높은 어머니는 긍정적이고 친밀한 정서표현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위로하여 정서를 조절

하고 문제해결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행동은 적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야단을 치고 무시하거나 스트레스 반응은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벌의 효과와 수용에 대한 신념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언어적, 신체적 처벌행동이 많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한데(장희정, 방희정, 옥정, 2005), 자녀 양육 시 비난이나 놀림을 사용해도 된다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는 자녀의 정서를 진지하게 수용하여 이해해주시기보다는 무시하거나 처벌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의 정서를 사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자녀가 공유하고자 할 때까지 기다려주어야 한다는 신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고 문제해결을 하도록 돕는 반응뿐 아니라 최소화 반응도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정서를 사적인 영역으로 인정하고 기다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는 적극적으로 자녀를 돕는 행동을 자제하면서도 자녀의 정서를 무시하고 평가절하 하는 행동 또한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념이 자율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가치와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으나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알려하지 않는다면 시기적절한 양육과 훈육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Rudd, 2006) 정서사생활 신념이 형성되는 맥락, 실제 양육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신념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자녀가 보이는 정서가 진실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신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문제해결을 하도록 돕는 반응은 적은 반면 부정정서에 대해서 혼을 내고 평가절하하고 스트레스 반응은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작행동은 다른 사람을 속인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여겨지기도 하므로(Rudd,

2006), 자녀의 정서가 진실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어머니는 자녀의 정서경험을 진지하게 수용하거나 지지하는 반응보다는 처벌과 같은 비지지적 반응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정서관련 신념에 따른 양육행동

부정적 정서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다른 신념들에 비하여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을 격려하는 양육행동을 가장 잘 예언하였다. 또한 긍정정서에 대해 수용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신념들에 비하여 어머니의 적극적인 정서표현을 가장 잘 예언하였는데, 흥미로운 결과는 부정정서가치 신념은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반면에 긍정정서가치 신념은 부정적 정서 표현을 포함하여 어머니의 모든 정서 표현을 예언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정서 표현을 하는 것은 부정 정서에 대한 가치뿐 아니라 부정 정서를 표현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결과, 가령 관계를 해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만든다는 부정 정서의 표현에 대한 낮은 신념과 같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최해연 외, 2005). 또한 긍정정서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일수록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긍정 정서 표현을 격려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가족 구성원간의 정서를 개방하고 나눌 수 있는 가족환경을 만들 것이다. 긍정 정서는 부정 정서를 느낄 때의 심혈관 활성화도를 기본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시키는 등 스트레스로 인한 역기능적 상태를 회복시키고(Fredrickson & Levenson, 1998; Fredrickson, Mancuso, Branigan, & Tugade, 2000; 최해연, 2012에서 재인용) 주의 폭과 사람들의 인지 및 행동의 목록을 넓히며 동맹을 유지시키고 서로를 돕는 협력적인 대인간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Fredrickson, 1998). 따라서 긍정정서가치 신념이 높은 어머니가 조성한 정서적 환경은 부정 정서표현에 대한 억제적 신념을 완화시키고 부정 정서에 대한 표현 또한 촉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서가 위협하다는 신념은 다른 신념들에 비하여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축소하거나,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것과 같은 비지지적인 양육행동을 가장 많이 예언하였으며 처벌반응과 낮은 수준의 긍정정서 및 친밀정서 표현도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표현을 자제해야 한다는 신념이 긍정정서와 친밀정서표현을 예언하였던 연구결과(정윤경 외, 2012)와 유사한데, 이는 정서가치에 대한 신념과 함께 정서는 위협하다는 신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예언하는 강력한 인지적 변인임을 제안하는 것이다. 단지 정서일 뿐이라는 신념은 부정정서가치, 부모지도 신념 다음으로 부정정서 표현을 격려하는 양육행동을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가지지는 않지만 정서표현을 하나의 선택으로 인식하다보니 정서표현을 격려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이들의 정서는 유동적이라는 신념은 정서는 위협하다는 신념 다음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최소화 반응을 예언하였으며, 아이들의 정서표현 방식은 성장하며 달라질 수 있다는 신념은 부모지도 신념 다음으로 정서중심 반응과 문제중심 반응을 예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정서적 능력에 대한 부모의 신념이 양육행동을 예언하는 중요한 인지적 변인임을 제안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지도해야 한다는 역할에 대한 신념은 다른 신념들에 비하여 부모 자신의 친밀한 정서 표현뿐 아니라 자녀 정서 표현에 대한 격려 반응, 정서중심반응, 문제해결반응을 가장 많이 예언하였고 낮은 수준의 처벌 반응을 예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Gottman 등(1996)이 상위-정서철학에서 제안한 것처럼, 부모 스스로가 자녀의 정서 사회화에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은 정서관련 양육행동을 예언하는 중요한 인지적 변인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녀가 스스로 정서규칙을 학습해 나갈 수 있다는 신념은 문제중심 반응을 예언하기도 하였지만 처벌 반응도 예언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동일한 신념이 지지적, 비지지적 양육행동 모두를 예언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에는 정서관련 신념이외에도 다양한 변인들이 작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양육에 있어서의 부모의 동기라는 인지적 변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자녀에게 민감한 양육과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모는 자신보다는 자녀의 흥미와 행복을 촉진하려는 아동 지향적 동기(child-oriented concern)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Dix, Gershoff, & Meunier, 2004). 동일한 신념을 가진 부모라도 아동 지향적인 동기를 가졌다면 자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반응을 보일 것이고 부모 지향적인 동기(parent-oriented concern)를 가졌다면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자녀 양육 시에 비난이나 놀림을 사용해도 된다는 신념이 다른 신념들에 비하여 처벌반응과 스트레스 반응과 같은 비지지적 양육행동을 가장 많이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정서는 진실한 것이기보다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신념은 적은 정서표현 격려반응과 많은 처벌 반응을 예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에게 보이는 비지지적인 양육행동을 예측하는데 정서는 위협하다는 신념 다음으로 자녀에 대한 비난이나 놀림을 수용하는 신념이 가장 중요하며 자녀의 정서를 진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신념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요컨대,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어머니에게서 긍정정서가치, 부정정서가치, 정서위험, 정서일뿐, 통제가능, 정서유동성, 정서발달가능성, 부모지도, 스스로학습, 경멸, 정서사생활, 조작이라는 12개 신념이 있음을 확인하여 기존 국내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신념들을 추가적으로 밝혔다. 확인된 신념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을 맺으며 양육행동을 예언해주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가지는 정서관련 신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시켜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설문지에 의한 자기 보고로만 이루어져 다양한 신념이 가지는 의미, 신념이 형성되는 맥락, 실제 자녀양육에서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이해는 부족하다. 이에 추후에는 면접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신념들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와 본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은 추가적인 신념들이 존재하는지 다양한 신념요인들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확인된 신념들이 실제 양육행동과 가지는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더불어 부모의 정서에 대한 신념이 양육행동을 지도하고 결국에는 자녀의 결과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연구자들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Dix, 1991, 1993; Dunsmore & Halberstadt, 1997; Gottman et al., 1996, 1997; Halberstadt et al., 2008; Katz, Wilson & Gottman, 1999)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조절과 같은 자녀의 결과물과의 관련성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희정 (1995). 어머니가 지각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동의 대처반응.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희진 (1995). 자녀 양육에 대한 한국과 미국 어머니들의 신념 비교 연구. **유아교육연구**, 15(2), 5-22.
- 박광향 (2009). 자녀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지우 (2010). 부모상위정서와 양육태도 및 아동 행동문제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미애 (2002). 부모의 정서표현에 따른 유아의 감정조망수용능력과 감정조절능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태림 (1986). 한국인의 성격. 서울: 도방도서.
- 이현민 (1998).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태도,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희정, 방희정, 옥정 (2005). 체벌에 대한 신념, 양육 스트레스가 체벌행동을 매개로 아동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 양육 효능감 중재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3), 143-163.
- 정윤경, 박보은 (2010). 정서표현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발달적 관련 변인: 회고된 어머니의 정서 표현 양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4), 111-125.
- 정윤경, 박혜진 (2012). 한국 부모의 정서발달에 대한 신념과 이에 따른 정서관련 양육행동.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2), 107-128.
- 최상진 (1997). 한국인의 심리특성. 한국심리학회(편), **현대심리학의 이해**(pp. 695-766). 서울: 학문사.
- 최혜연 (2012). 한국의 대학생과 직장인이 경험하는 긍정정서의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 및 성격, 26(4), 73-88.
- 최해연, 민경환 (2005).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구조와 기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1), 239-257.
- 하정 (1997). 정서표현 성향과 스트레스 평가 및 대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Beck, A. T., Emery, G., & Greenberg, R. L. (1985). *Anxiety Disorder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s.
- Cervantes, C. A., & Seo, M. (2005). Korean mother's belief about children's emotions: An examination of parenting in a multicultural context. In J. C. Dunsmore (Ed.), *Multicultural examination of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 Meaning, mechanisms, and methods*. Symposium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Atlanta, GA.
- Cowan, P. A. (1996). Meta-thoughts on the role of meta-emotion in children's development: Comment on Gottman *et al.* (1996).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277-283.
- Denham, S. A., Caal, S., Bassett, H. H., Benga, O., & Geangu, E. (2004). Listening to parents: Cultural variations in the meaning of emotion and emotion socialization. *Cognitie Creier Comportament*, 8, 321-350.
- Dix, T. (1991). The affective organization of parenting : Adaptive and maladaptative processes. *Psychological Bulletin*, 110, 3-25.
- Dix, T. (1993). Attributing dispositions to children: An interactional analysis of attribution in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633-643.
- Dix, T., Gershoff, E. T., & Meunier, L. N. (2004). The affective structure of supportive parenting: Depressive symptoms, immediate emotions, and child-oriented motiv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40, 1212-1227.
- Dix, T., & Grusec, J. E. (1985). Parent attribution processes in socialization of children.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s* (pp. 201-233). Hillsdale, NJ: Erlbaum.
- Dix, T., Ruble, D. N., & Zambarano, R. J. (1989). Mothers' implicit theories of discipline: Child effects, parent effects, and the attribution process. *Child Development*, 60, 1373-1391.
- Dunsmore, J. C., & Halberstadt, A. G. (1997). How does family emotional expressiveness affect children's schemas? In K. C. Barrett (Ed.), *The communication of emotion: Current research from diverse perspectives* (pp. 45-68). San Francisco: Jossey-Bass.
- Dunsmore, J. C., Her, P., Halberstadt, A. G., & Perez-Rivera, M. B. (2009) Parents' beliefs about emotions and children's recognition of parents' emotions.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33, 121-140. doi: 10.1007/s10919-008-0066-6

- Dunsmore, J. C., & Karn, M. (2001). Mother's beliefs about feelings and children's emotional understanding.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2*, 117-138.
- Eisenberg, N. (1996). Meta-emotion and socialization of emotion in the family—A topic whose time has come: Comment on Gottman et al. (1996).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269-276. doi: 10.1037/0893-3200.10.3.269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 241-273.
-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 Reac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 138-156.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 Reac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2227-2247.
- Fabes, R. A., Eisenberg, N., & Bernzwing, J. (1990).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Procedures and scoring*. unpublished manuscript, Arizona State University.
- Fredrickson, B. L. (1998). What good are positive emo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 300-319. doi: <http://dx.doi.org/10.1037/1089-2680.2.3.300>
- Gottman, J. M., Katz, L.,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of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243-268.
- Gottman, J. M., Katz, L., & Hooven, C. (1997). *Meta-emotion: How families communicate emotionally*. Mahwah, NJ: Erlbaum.
- Halberstadt, A. G., Cassidy, J., Shifter, C. A., Parke, R. D., & Fox, N. A. (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Psychometric support for a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7*, 93-103.
- Halberstadt, A. G., Dunsmore, J. C., Parker, A. E., Beale, K. R., Thompson, J. A., & Bryant, A., Jr. (2007).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s. [In preparation].
- Halberstadt, A. G., Thompson, J. A., Parker, A. E., & Dunsmore, J. C. (2008). Parents' emotion-related beliefs and behaviors predict children's reactions to the September 11, 2001 terrorist attack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7*, 557-580. doi: 10.1002/icd.569
- Katz, L. F., Wilson, B., & Gottman, G. M. (1999) Meta-emotion philosophy and family adjustment: Making an emotional connection. In J. Brooks-Gunn & M. J. Cox (Eds.), *Conflict and cohesion in families: Causes and consequences* (pp. 131-165).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64-877. Kliewer, W., Fearnow, M. D., & Miller, P. A. (1996). Coping socialization in middle childhood: Tests of maternal and paternal influences. *Child Development*, 67, 2339-2357. doi: 10.2307/1131627
- Lozada, F. T. (2011). *The Contribution of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s to parents' emotion-related socialization behaviors*. Master's Dissertation,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North Carolina, USA. <http://www.lib.ncsu.edu/resolver/1840.16/7169>
- McGillicuddy-De Lisi, A. V.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cognitive level. In I. E. 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7-24.
- McGillicuddy-De Lisi, A. V., & Sigel, I. E. (1995). Parental beliefs.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 3* (pp. 333-358).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Parker, A. E., Halberstadt, A. G., Dunsmore J. C., Townley, G. E., Bryant, A. Jr., Thompson, J. A., & Beale, K. S. (2012) "Emotions are a window into one's heart" : The qualitative analysis of parental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s across three ethnic group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7(3), 1-144. doi: 10.1111/j.1540-5834.2012.00676.x
- Rivera, M. B., & Dunsmore, J. C. (2011) Mothers' acculturation and beliefs about emotions, mother-child emotion discourse, and children's emotion understanding in latino familie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2(2), 324-354.
- Rudd, K. S. (Beale)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ethnicity, SES, and education on parental beliefs of manipulation, contempt, and privacy*. Doctoral Dissertation,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North Carolina, USA <http://www.lib.ncsu.edu/resolver/1840.16/3028>
- Stelter, R. L. (2007).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s, and children's perceptions and behavior*. Master's Dissertation,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North Carolina, USA <http://www.lib.ncsu.edu/resolver/1840.16/6230>
- Wong, M. S., McElwain, N., & Halberstadt, A. G. (2009). Parent, family, and child characteristics as predictors of mother-and father-reported emotion socialization practic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 452-463. doi: 10.1037/a0015552

---

1차 원고 접수: 2013. 07. 14.

수정 원고 접수: 2013. 08. 30.

최종 게재 결정: 2013. 09. 08.

# Mother's Emotion Expression and Response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Expression by Emotion-related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

Juhye Shin, Yoonkyung Jeong

Dep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Korean mothers' emotion-related beliefs and their relationship to mothers' emotional expressions and response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Mothers with 3-6 years old children completed questionnaires regarding emotion-related beliefs, mother's own emotional expressions, and coping strategies for children'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Our results showed that Korean mothers had twelve beliefs regarding value, control, developmental processes, guidance, and relation. Beliefs about positive emotional value were the highest, and beliefs about contempt were the lowest. Our results also reveal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Korean mothers' emotion-related beliefs and their emotion-related parenting behaviors. Beliefs about negative emotional value, positive emotional value, and parental guidance were positively related to supportive responses. Beliefs that all emotions are bad were positively related to non-supportive responses and negatively related to emotional expressions. Beliefs about contempt and manipulation were positively related to supportive responses. Furthermore, Korean mothers' emotion-related beliefs significantly predicted emotion-related parenting behaviors. Overall, these results suggest that emotion-related beliefs are crucial cognitive variables related to parenting behaviors

*Keywords* : emotion-related belief, emotion expression, response to child's negative emotion expression



## 부 록\*

부록 I. 가치척도의 하위 요인별 문항의 요인부하량과 문항-하위 요인 총점 간 상관

하위요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문항-총점 간 상관	공통성
부정정서 가치	43 화가 나는 것은 아이들이 자신 삶의 어떤 것을 변화하거나 고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719	.079	-.013	.062	.738	.523
	44 화를 표현하는 것은 아이들이 자신의 욕구와 의견을 알리는 좋은 방법이다.	.691	-.070	-.134	.125	.672	.415
	20 때로 화를 느끼는 것은 아이에게 유용하다.	.680	-.008	.053	-.102	.737	.518
	39 화를 느끼는 것은 행동하게 하는 유용한 동기가 될 수 있다.	.637	-.065	-.005	.042	.667	.393
	29 아이들이 화를 내는 것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622	.013	.021	.126	.675	.396
	19 화를 내는 것은 비컨 후 맑은 하늘처럼, 아이들에게 안도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616	-.114	.051	.019	.696	.399
	28 아이들이 화를 내게 놔두는 것은 괜찮다.	.580	-.105	.117	.034	.672	.394
	22 때때로 아이들이 주저앉아 마음껏 우는 것도 괜찮다.	.565	.110	.064	-.109	.664	.409
	1 화가 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예: 어려운 과제를 인내하거나 자신을 옹호하게 만든다)	.498	.119	.124	-.012	.620	.342
	36 슬픔을 느끼는 것은 아이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한다.	.462	.130	.101	.021	.569	.290
긍정정서 가치	35 일을 잘 끝마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것은 아이들에게 중요하다.	-.001	.752	.013	.005	.750	.565
	33 자신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아이들에게 중요하다.	.009	.732	.009	-.055	.733	.551
	27 아이들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표현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027	.699	-.026	-.003	.719	.485
	21 기쁨은 중요한 감정이다.	-.101	.670	.041	-.059	.688	.453
	5 행복할 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있어 중요하다.	-.044	.662	.012	.129	.673	.432
	6 아이들이 행복할 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다.	-.016	.605	-.062	.141	.616	.368
	24 넘쳐나는 기쁨은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039	.541	.079	.014	.640	.294
	31 누군가와 긍정적인 감정을 나누는 것은 아이들에게 중요하다.	.031	.537	-.005	-.094	.633	.314
	13 행복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중요하다.	.091	.535	.041	-.006	.640	.314
	4 아이들의 긍정적인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은 가족에게 좋다.	.015	.517	.030	.000	.594	.272
정서일뿐	32 슬픈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 단지 삶의 일부이다.	-.119	-.057	.928	-.036	.850	.792
	34 화가 나는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 단지 삶의 일부이다.	-.008	-.070	.848	.002	.817	.714
	25 슬픔을 보이는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 단지 어른이 되어가는 한 부분일 뿐이다.	-.014	-.020	.751	.061	.829	.560
	3 감정을 나타내는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이것은 단지 어른이 되어가는 한 부분일 뿐이다.	-.060	.022	.607	.259	.753	.414
정서위험	7 슬픔을 느끼는 것은 때로는 삶의 한 부분일 뿐이다.	.063	.200	.428	.006	.591	.257
	30 가능하다면 슬픔을 느끼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중요하다.	-.243	-.008	-.005	.537	.640	.381
	15 슬픔을 느끼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	-.391	-.069	-.091	.513	.625	.518
	18 누군가를 매우 좋아하다가 그 사람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	.115	-.024	.123	.501	.569	.278
	9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막다른 길과 같아서 아이들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	-.116	-.056	.159	.474	.575	.272
	45 아이들이 강한 감정을 보이기 시작하면, 이것이 어떻게 끝이 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293	-.164	-.043	.470	.488	.298
	37 아이들이 화를 표현할 때, 결국 가족 누군가는 어떠한 결과를 감당하더라도 마무리해야 한다.	.309	.154	-.009	.464	.411	.295
	38 아이들의 화는 감정적으로 위험하다.	-.344	-.044	-.105	.435	.600	.392
	23 아이들이 화를 내는 것은 문제만을 만들 뿐이다.	-.355	-.137	-.020	.430	.590	.396
	12 아이들이 화를 내면 스스로에게 더 많은 문제를 만들 수 있다.	-.172	.061	-.048	.411	.527	.219
42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다가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다.	.078	-.039	.135	.403	.495	.191	
	고유치	7.468	4.438	2.788	2.166		
	설명변량(%)	16.595	9.862	6.195	4.814		

부록 II. 통제적도의 하위 요인별 문항의 요인부하량과 문항-하위 요인 총점 간 상관

하위요인	문항	요인1	문항-총점간 상관	공통성
통제 가능성	9 아이들은 매우 화가 나도, 남들에게 보이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	.791	.793	.626
	14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조절할 수 있다.	.724	.732	.524
	8 아이들은 자신이 원할 때, 너무 들뜨는 상태에 빠지는 것을 조절할 수 있다.	.719	.726	.517
	13 아이들은 원한다면, 자신이 과도하게 흥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699	.707	.489
	22 아이들은 너무 행복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자제할 수 있다.	.696	.723	.485
	23 아이들은 화난 감정을 멈출 수 있다.	.693	.721	.481
	10 아이들은 슬픔을 느낄 때, 이러한 감정을 멈출 수 있다.	.660	.683	.436
	20 아이들은 얼굴에 나타나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645	.678	.416
	17 아이들은 얼굴 표정을 아주 잘 통제한다.	.636	.661	.405
	5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싶을 때 숨기는 것이 쉽다.	.608	.631	.370
	11 행복감을 통제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쉽다.	.594	.614	.353
	6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564	.593	.319
	2 아이들은 매우 슬플 때도 남들에게 보이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	.527	.564	.277
	21 아이들은 화가 날 때, 하고 싶은 것이나 즐거운 것을 상상하여 자신의 감정을 바꿀 수 있다.	.511	.553	.261
	24 아이들이 정말 원할 때는 자신이 느끼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	.481	.544	.226
	7 아이들은 목소리 톤을 기분 좋게 유지할 수 있다.	.476	.522	.222
15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한다.	.471	.522	.232	
16 아이들은 행복한 감정을 숨기지 못한다.	.467	.499	.218	
고유치		7.521		
설명변량(%)		31.338		

부록 III. 발달과정적도의 하위 요인별 문항의 요인부하량과 문항-하위 요인 총점 간 상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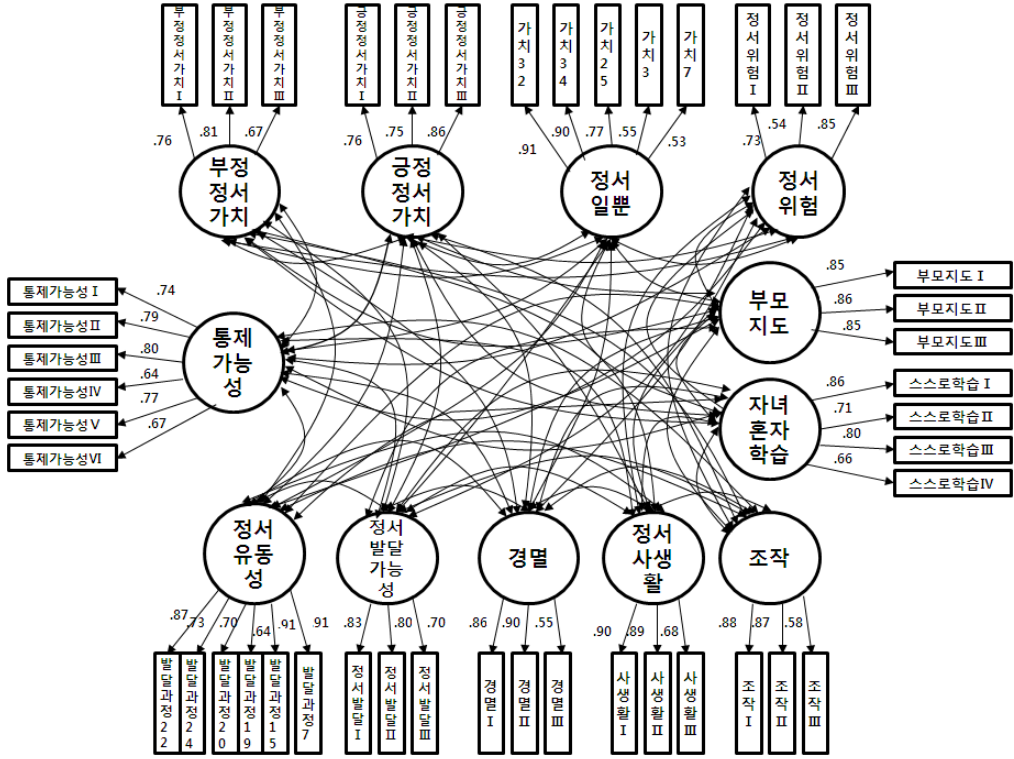
하위요인	문항	요인1	요인2	문항-총점간 상관	공통성
정서 유동성	22 아이들은 한 순간 매우 속상했다가 다음 순간 행복해질 수 있다.	.910	-.204	.802	.682
	24 아이들의 감정은 빨리 변할 수 있다.	.779	.027	.767	.629
	20 아이들은 한 순간에는 행복하지만 다음 순간에는 슬퍼질 수 있다.	.730	-.064	.738	.490
	19 아이들의 감정은 어른의 것보다 빨리 변화한다(예: 화에서 행복으로).	.722	-.026	.791	.503
	15 아이들은 자신의 기분이 어땠는지 잊어버리고 쉽게 넘어갈 수 있다.	.483	-.035	.637	.217
	7 아이들의 감정은 슬픔에서 행복으로, 또한 반대로도 빠르게 변할 수 있다.	.414	.119	.613	.235
정서 발달 가능성	14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들이 감정을 느끼는 방식은 변화할 수도 있다.	.116	.686	.758	.566
	11 아이들은 성장함에 따라, 감정적 방식이 변화할 수 있다.	.105	.670	.745	.531
	12 어릴 때 아이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다.	.051	.621	.671	.421
	5 자라면서 아이들은 감정적 패턴을 바꿀 수 있다.	-.126	.564	.542	.262
	13 아이들은 일상동안 변하지 않는 감정적 유형을 가지고 태어난다.	.060	.480	.626	.263
	16 아이들이 감정적 상황에 접근하는 방식은 나이가 들에 따라 성장하고 변할 수 있다.	.219	.465	.632	.368
	4 아이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시간이 지나도 동일하다.	.068	.417	.561	.207
	10 아이들이 감정을 어떻게 느끼는지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089	.410	.556	.213
23 아이들의 감정적 유형은 성숙해져가면서 많이 변화한다.	.373	.404	.655	.455	
고유치		6.167	1.405		
설명변량(%)		24.668	5.618		

**부록 IV. 지도적도의 하위 요인별 문항의 요인부하량과 문항-하위 요인 총점 간 상관**

하위요인	문항	요인1	요인2	문항-총점간 상관	공통성
부모 지도	10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가리키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다.	.809	.058	.815	.636
	14 아이들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식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다.	.763	-.007	.790	.585
	8 아이들이 화가 났을 때, 부모는 이러한 감정을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다.	.759	.055	.770	.559
	3 부모는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는지를 알도록 도와야 한다.	.750	-.005	.785	.565
	2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다.	.746	.056	.757	.540
	7 아이들에게 행복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다.	.734	-.035	.784	.552
자녀 스스로	15 부모는 아이들에게 괴로움이나 다른 속상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717	-.020	.755	.522
	5 아이들이 슬퍼할 때 부모는 그들을 도와야 한다.	.691	-.100	.750	.519
	6 부모는 언제, 어떻게 자부심을 나타내야 하는지를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676	-.035	.744	.470
	13 아이들이 슬프거나 속상해할 때, 부모는 아이들 스스로 감정을 다루도록 놔두어야 한다.	.042	.708	.732	.517
	11 아이들은 보통 부모가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화난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깨닫는다.	.017	.683	.745	.461
	16 아이들이 화가 났을 때, 스스로 극복하도록 두는 것이 가장 좋다.	-.083	.676	.722	.490
자녀 스스로	4 언제, 어떻게 긍정적 감정을 보여야 하는지는 아이들 스스로가 알아내야 하는 것이다.	.032	.662	.720	.429
	7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다.	.086	.652	.688	.407
	12 아이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가장 좋다.	-.046	.627	.673	.409
	9 아이들은 자신의 슬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스스로 알아낼 수 있다.	.082	.624	.677	.372
	1 아이들은 부모의 도움없이도 정서를 다루는 방법을 깨닫는다.	-.111	.503	.625	.291
고유치		5.410	2.914		
설명변량(%)		31.824	17.139		

**부록 V. 관계적도의 하위 요인별 문항의 요인부하량과 문항-하위 요인 총점 간 상관**

하위요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문항-총점간 상관	공통성
경멸	11 아이들을 흉내내며 놀리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다.	.781	-.063	.067	.790	.613
	9 아이의 감정에 대해 놀리는 것은 때로 그들의 행동을 바꾸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773	-.013	.100	.782	.607
	6 아이의 행동을 놀리는 것은 때로는 그들의 행동을 바꾸게 돕는다.	.703	.052	.086	.752	.493
	5 빈정대는 것은 아이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700	-.054	.059	.722	.491
	16 아이들이 실수를 하면, 때때로 부모는 아이들의 행동을 깔보고 무시하거나 비웃어도 된다.	.694	.011	.092	.712	.508
	33 부모가 아이의 행동을 비웃는 것은 아이들이 앞으로 더 나은 행동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	.600	-.045	.043	.656	.362
	29 부모가 아이들의 행동을 업신여기거나 비웃는 것은 아이들이 앞으로 더 잘하도록 돕는 적절한 방법이다.	.570	.011	.054	.608	.329
	37 부모가 아이들의 감정을 놀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551	.028	.012	.659	.306
	19 아이들의 행동을 놀리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니다.	.464	.026	-.035	.575	.218
	40 부모는 아이들의 행동을 흉내내며 놀려서는 안된다.	.423	.073	-.166	.558	.212
사생활	7 부모는 아이들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알아야 한다.	.094	.798	-.041	.807	.649
	2 아이들은 좋은 감정이나 나쁜 감정은 모두를 부모와 나누어야 한다.	.044	.751	-.064	.741	.566
	34 부모가 아이들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알 필요는 없다.	-.055	.723	.033	.773	.527
	15 아이들은 자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부모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125	.692	.039	.724	.492
	41 부모는 아이들이 느끼는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	-.031	.680	-.019	.737	.461
	1 부모는 아이들의 감정 모두에 대해 알 필요는 없다.	.151	.653	-.074	.688	.456
	24 부모는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 모두를 자신에게 이야기하라고 격려하여야 한다.	-.137	.539	.040	.611	.308
조작	21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감정을 가지는 것은 괜찮다.	-.213	.502	.040	.559	.293
	32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부모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151	.453	-.066	.520	.234
	14 아이들은 단지 바라는 바를 얻기 위해서 자주 슬픈 척 한다.	.116	.092	.767	.776	.621
	36 아이들은 단지 주의를 끌기 위해서 때론 슬픈 척 한다.	.080	.014	.742	.782	.559
	17 아이들은 단지 바라는 바를 얻기 위해서 자주 화난 척 한다.	.147	.129	.690	.758	.528
	13 아이들은 단지 주의를 끌기 위해서 때로 화난 척 한다.	.017	.056	.674	.695	.463
	30 아이들은 단지 주의를 끌기 위하여 자주 운다.	.152	.123	.589	.663	.364
	18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조정하기 위해서 감정을 사용한다.	.127	.043	.585	.684	.397
조작	4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감정을 과장한다.	-.113	-.115	.574	.589	.347
	35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대하며 신이 난 척 하면,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안다.	.173	-.005	.466	.567	.247
	38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때때로 예정을 표현한다.	-.033	-.080	.460	.509	.214
	고유치		5.700	4.389	3.484	
설명변량(%)		13.903	10.704	8.498		



부록 VI. 정서관련 신념 척도의 요인구조

